이상득, 검찰 소환 임박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제331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942.85 (-4.25)

코스닥 682.70 (-1.18)

금리(국고채 3년) 1.62 (-0.01)

환율(원·달러) 1,194.00 (변동없음)

독일의 아이폰6S 구입 대기 행렬 2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애플 매장 앞에서 신규 출시된 아이폰 6S 구입 대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새 아이폰, 또 신기록 경신

6s·6s플러스, 첫 주말 1300만 대 팔려
삼성·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부담↑

애플이 또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애플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 6s·6s플러스가 발매 첫 주말(25~27일)에 1300만여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호주·일본·싱가포르·중국·독일·영국 등 1차 출시국 12개 지역의 판매 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아이폰 6s·6s플러스는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첫 주말 판매량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신제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은 2012년 아이폰 4s 400만대, 2013년 아이폰 5s·5c 900만대, 2014년 아이폰 6·6플러스 1000만대였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새 아이폰이 발매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첫 사흘간 실적을 '첫 주말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경이적"이라며 아이폰 6s·6s플러스의 초기 판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이폰 6s·6s플러스의 폭발적인 초기반응은 확고한 고객 충성도와 더불어 1차 출시국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판매 전부터 소비자들은 애플 매장 주변에 장사진을 이뤘고, 아이폰을 손에 넣은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에 애플은 1차 출시국을 12개 나라로 늘리며 공격적으로 초기 물량을 풀었다. 앞서 아이폰 1차 출시국은 아이폰 5 8개국, 아이폰 5s·5c 10개국, 6·6플러스 9개국이었다.

아이폰 6s·6s플러스는 외부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핵심 기능을 업그레드하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잡아 당겼다. 아이폰 6s·6s플러스의 주요 사양 변화는 △3D 터치 △A9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2GB D램 △전후면 카메라 업그레이드 △2세대 터치 아이디 지문인식센서 등이다. 애플은 연말까지 아이폰 6s·6s플러스를 130여개국에 출시하며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폰이 다시 한 번 '빅히트'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방향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양사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악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을 늘리기도 힘들고, 경쟁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판매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플의 신제품 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지난달 조기 등판한 두 제품이 아이폰 6s·6s플러스로 인해 판매가 줄어들 경우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한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 S7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LG전자 역시 다음달 1일 공개하는 슈퍼폰(가칭)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이폰 6s·6s플러스가 시장을 뒤흔들면서 신제품 효과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슈퍼폰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이 기획·개발 단계부터 진두지휘한 제품이다. LG전자의 역량이 집약된 스마트폰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G4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슈퍼폰까지 주춤하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보험사 약관대출 고금리 '논란'

동양생명 최고 연 11.5%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활용해 최대 연 11.5%의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상환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데도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약관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에서 연 10% 내외의 고금리를 매겨왔다.

보험사별로는 동양생명의 최고금리가 연 11.5%로 가장 높았고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고금리가 연 10.5%였다.

이런 고금리로 인해 보험사들의 보험약관대출 이자 수입은 지난 2010년 2조9786억원에서 지난해 3조3038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보험사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80% 범위 내에서 급전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는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금리 부담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실정이다.

보험약관대출은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금리연동형은 시장금리에 약간의 가산금리(1.5%p)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보험사 측에선 "보험 만기 때 높은 금리로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담보로 대출받을 때에도 돈을 떼일 위험을 감안해 그만큼 금리를 물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김보배 기자 bobae@

All we get is traffic jam.

특혜 주고 받는 건 교통체증

While managerial patents of the three duty shops in Se oul and the one in Pusan are closing on the 25th, the bidd ing of duty free shops are po inted out to be the fest of mi llionaires.

There are 4 places that th e patent cover is over in Nov ember and in December, Lot te Duty free in Seoul, Sogol World Tower, Walker Hill D uty Free shop of SK network s and Sinsegea in Pusan.

As maintenance and a sie ge, Dusan, SK, Sinsegea and Lotte put their steps in it.

According to the marke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 t Sinsegea and Dusan are go ing to support all the three d uty shops in Seoul Any comp anies have been freed to join this patent bidding process with no restrictions every 5y ears after the customs law c hanged in 2013. Before then, duty free shop patenting had been renewed automatically every 10 years. New duty fre e shops, golden goose that la ys golden eggs, is becoming a place for millionaires.

Mediocre sized companies and small merchants have b een ruled out from the new a rrangement of the patents ov er duty shops in down town i n June.

Only the millionaires are being the beneficiaries of th e tax-free-businesses.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12월 특허기간이 끝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의 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등 4곳이다.

수성(守城)과 동시에 공성(攻城)차원에서 롯데(회장 신동빈)·신세계(부회장 정용진)·SK(회장 최태원)·두산(회장 박용만) 그룹이 출사표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 면세점 3곳 모두에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어느 기업이든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유되는 신규 면세점은 재벌들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규 배정에서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은 제외됐다.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 사업이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공직자에게 '양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속사포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가 추석연휴 기간 시험 운영을 거쳐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사회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곳, 중·고교 7곳 등 10개 학교를 '사회적 경제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192개 4년제 **대학 전임교수**의 평균 연봉이 9000만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지역별 전임교수의 연봉액은 최대 1000만원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 회장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7억9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복원 10년' 청계천 1억 9000만명 다녀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다음 달 1일은 청계천이 복원된 지 10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청계천에는 1억 90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다. 내년 초면 2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국제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업체 가운데 2년 연속 연비를 가장 크게 과장해 발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의 다른 브랜드도 조작 연루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가운데 스캔들 이후 사퇴한 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발표됐다. 화성에 외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인간이 화성에 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보여 주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한국인 여학생 1명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경제

▲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에서 정식 출시됐다. 삼성페이의 글로벌 시장 성공 여부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기능이 탑재되는 내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이브리드(HEV) 전용 모델 AE(프로젝트명)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HEV 명가 토요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판되고 있는 현대차 HEV 중 쏘나타만이 선전하고 있고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K5·K7 HEV는 판매량이 부진한 상태다.

▲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6조6021억원으로 2분기(6조8979억원)에 못 미친다.

▲ 올 들어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 붐이 지속되면서 신규상장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12개사, 코스닥 시장 65개사, 코넥스 시장 24개사 등 101곳으로 집계됐다.

▲ **국민연금**이 보험소비자 대상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올해 3.5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의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건설사들**이 하반기 수요층 공략 키워드를 여심전심(女心傳心)으로 잡았다. 대림산업이 10월 분양 예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는 젊은 여성부터 중년층 여성 수요자를 사로잡는 서울 남산도서관 2배 규모의 라이브러리 파크 시설이 들어선다.

▲ 9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추석연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청약은 전국 1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모델하우스 오픈도 다산신도시 아이파크 등 2곳에 불과하다.

아무리 지적해도 '마이동풍' 국민연금

불합리한 3단계 감액방식
1개월 차이로 80만원 깎고
119개월 차이 나도 똑같아
4년째 국감서 같은 지적

현행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구간을 3구간으로 단순화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4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국감은 물론이고 관련법의 개정 노력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감액하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감액하고 있다.

이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구간이 3구간만으로 되어 있어 불과 1개월 차이로 인해 감액률의 차이가 10%나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자 A씨와 B씨의 월 기본연금액은 비슷하지만 A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40개월로 40%만 감액되는 반면, B씨의 사망자 가입기간은 239개월로 20년 기준에 1개월이 모자라 감액률이 50%나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가 A씨에 비해 약 월 7만원정도 덜 받고 있었다. 1년이면 약 80만원정도 덜 받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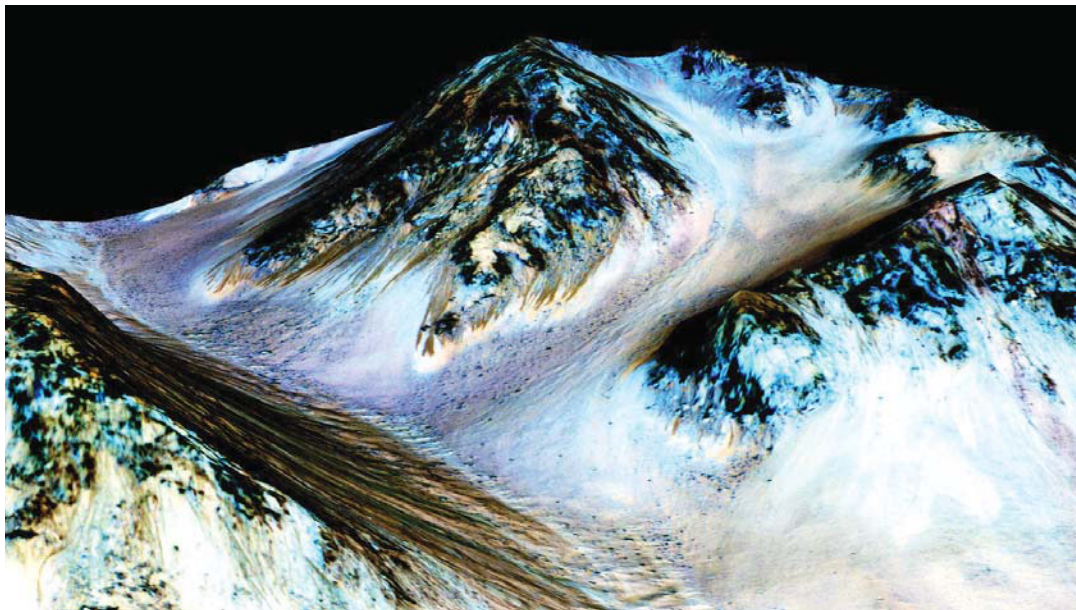
감액률의 다른 경계선 영역인 9~10년미만과 10~11년미만에서는 약 월 8만원정도, 19~20년미만과 20년 이상에서는 약 월 15만5000원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구간에서는 월지급액 차이가 1만원내외였다.

3구간은 또 다른 문제도 낳고 있다. 같은 감액구간내에 있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액률이 적용되는 문제다. 가령 유족연금의 50%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은 최소 120개월부터 최대 239개월까지다. 이로 인해 가입기간이 119개월이나 차이가 나서, 총납부액이 약1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유족연금액은 약 28만원으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1개월 차이로 연금액을 연간 80만원이나 깎더니 어떤 경우에는 119개월 차이가 나도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유족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2012년 국감 때부터 줄곧 질의도 하고 심지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으나 정부의 개선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유족연금 제도의 3단계 감액방식은 매우 불합리하다. 감액구간을 단계별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라 1년에 1%포인트씩 차등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감사위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목발 등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화성에 외계생명체 가능성"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궤도 정찰위성(MRO)에서 찍어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 화성 표면에 폭이 5m 내외, 길이가 100m 내외인 가느다란 줄 형태들이 보인다. 과학자들은 영하 23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생겼다가 그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지형을 RSL(Recurring Slope Lineae)이라면서, RSL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 등 염류를 포함한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했다. 물의 존재로 인해 화성에서 외계생명체가 발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NASA

이번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연비 뻥튀기

2년 연속 과장해 발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동차업체 가운데 2년 연속 연비를 가장 크게 과장해 발표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 소재 환경단체 '교통과 환경'(T&E)은 이날 보고서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의 실제 주행시 소모된 연료는 발표 수치보다 평균 48% 많았고 신형 A·C·E-클래스 모델은 5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BMW 5시리즈와 푸조 308도 발표 연비와 실주행 연비 차이가 50%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폭스바겐의 골프와 르노의 메간 승용차는 연비 차이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T&E 보고서는 밝혔다.

자동차업체 전반에 걸쳐 발표 연비와 실주행 연비 차이는 2001년 8%에서 지난해에는 40%로 확대됐고 이로 인한 운전자의 추가 연료비 부담은 연간 450유로(약 59만8000원)에 달했다.

T&E의 그레그 아처 청정차량 담당 부장은 "공기오염 검사처럼 차량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을 위한 유럽의 검사시스템도 신뢰도가 추락했다. 폭스바겐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지주회사인 다임러는 T&E가 연비 테스크 조건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마티아스 브록 대변인은 "우리는 실험실 테스트와 실 주행 연비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소형 승용차에 대한 통합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BMW의 마이클 리브스탁 대변인도 "실험실 테스트와 실주행 연비의 격차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며 "이 격차를 좁히려는 유럽연합(EU)의 규정 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고 언급했다.

T&E 보고서 수치는 비영리단체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가 60만대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송시우 기자 swsong@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해야"

"무역협정도 다시 해야"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주자인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경제 전문지 피시컬타임스(T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뉴욕시에 있는 트럼프타워에서 가진 유세에서 "미국은 모든 것에서 잃고 있다. 군사협정, 무역협정 등 여러 협정도 재협상할 것이고 이것이 국가운영 비용을 상당 부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국을 보호하고, 독일을 보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계의 부국 등 모든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이) 보상받는 것이 없어 일부 군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무역협정들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할 것이다. 모든 다른 나라와의 협정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 미국이 유리하게 협상한 나라가 없고 모든 협상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세금, 무역, 예산 정책 재검토로 현재 연 경제성장률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야심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미국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과 나머지 계층의 세금 인하 등 파격적 세금 공약에는 정부의 프로그램들을 재검토해 예산의 20%를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삭감도 포함됐다.

/송시우 기자

두쥐안 중국 상륙 29일 오전 중국 남동해안에 상륙한 제 21호 태풍 두쥐안의 모습. 앞서 두쥐안이 대만을 강타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3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합뉴스

친박,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발끈'

"대통령 순방 중 졸속 협상"
긴급 최고위 소집에 보이콧
오늘 의원총회도 논란 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친박근혜(친박)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김 대표는 29일 오전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지만 친박계는 이를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집한 것이다.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역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전제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한 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일 낮 부산 롯데호텔에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두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의견이 접근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 관련 법안은 선관위에서 독자안을 낸 게 있고 권은희, 민병두 의원 등 낸 의원들이 있다.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나오던 용어"라며 "새정치연합 고유의 주장을 내가 받은 거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김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는데 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너무 조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전승했는데 전패한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격이다.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손을 들어준 졸작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고 전승한 당이 전패한 당의 공천제도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협상 내용도 너무 미흡하고 부실하다"고 했다.

안심번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 프레임에 이번 협상 하나로 찬물을 끼얹었다. 수도권의 여당 후보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안심번호 제도는 대도시에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안심번호를 누가 받았는지 등을 다 안다. 결국 그냥 돈을 갖다 붓는 선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도 "안심번호를 위한 국민공천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지금껏 논의해온 오픈프라이머리와 다소 변형된, 다소 거리가 있는 공천제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완전국민공천제를 추진했어야 됐지만 차질이 생겼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상향식 공천 방식을 모색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말해 30일 의총에서 벌어질 논란을 예고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北, 추가도발 대신 개방으로"

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8·25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8·25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심상정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국감때 '양심 가지라' 발언
온라인서 '랩' 재구성 화제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고액연봉 공직자에게 '양심을 가지라'고 일갈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이 '속사포랩'으로 만들어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정의당에 따르면 인디레이블(저예산 독립음반사) '귀들사운드'의 대표인 백승호씨는 지난 25일 웹메거진 직썰에 '루즈 유어(loose your) 임금피크제'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에 맞춰 심 대표의 임금피크제 관련 발언을 편집한 동영상이다.

심 대표는 국감에서 장관과 동료 의원들에게 "장관은 왜 1억2000만원씩, 국회의원은 왜 1억4000만원씩 다 받아야 하느냐. 5000만~6000만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청년 연봉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액임금을 받아가느냐"며 "이 사회에서 고액임금 받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에게 '타협하자, 고통 분담하자'고 한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하면 23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사내유보금 1%를 조세로 걷으면 6조원"이라고 지적했다.

동영상에는 이 같은 장면이 속도감 있게 편집돼 있다.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5만건 이상 재생되고, 페이스북에서 1000건 이상 공유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나니 래퍼가 됐다.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얼마나 깊은 지, 좋은 정치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큰 지 무겁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송병형 기자

태권도 4단 미스USA, 한류 전도사 나서

'케이컬쳐 서포터즈' 발족

태권도 4단의 미스USA 출신 미녀가 한류 전도사로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케이컬처 서포터즈 발대식이 28일(현지시간)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케이컬처 서포터즈는 미국 현지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인사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학생 등 16명으로 구성되는 모임이다. 모임에는 미스USA 출신 미녀,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프랑스 출신의 컨설턴트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미스USA 출신으로 배우이자 모델인 니아 산체스(25)씨는 태권도 4단의 유단자로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태권도 코치이기도 하다.

프랑스 파리 출신으로 뉴욕 유명 레스토랑 '르 콜로니얼'의 재개장을 담당한 서비스업계 컨설팅 전문가인 에드가 버드빌(36)씨는 박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유학하던 시절 하숙집 주인이었던 장 버드빌 그르노블 도지사의 손자다. 이 같은 인연을 계기로 버드빌씨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뒤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는 등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다. 버드빌씨의 조모는 당시 인연으로 2013년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당시 재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미 간 문화 이해와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차기 검찰 총장에 김수남·박성재 주목

연말 퇴임 김진태 후임 관심집중
이득홍·김경수 등도 후보로 거론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임기만료로 물러나기로 하면서 곧 있을 차기 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명되는 인사는 김수남(56·연수원16기·**사진**) 대검 차장검사다. 김 차장검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법대를 졸업해 검찰 내 TK(대구경북) 핵심라인이다.

김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문건파문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기사를 작성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지휘한 것도 김 차장검사다.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했다. TK핵심인맥으로 통한다는 점에서 김 차장검사와 같다.

특히 박 지검장은 기업범죄 등 특수수사에 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편법 증여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도 이득홍(53·16기) 서울고검장, 김경수(55·17기) 부산고검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고검장도 TK출신이다. 김주현(54·18기) 법무부차관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나 기수가 아직 낮아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최근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최재경(53·17기) 전 인천지검장도 거론된다. 최 전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었지만 지난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실패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한편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음달 중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를 구성한 뒤 후보 천거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말쯤에는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귀경행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가 비교적 원활한 소통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5시부터 서서히 풀려 오후 8시께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이 하행선, 오른쪽이 상행선. /연합뉴스

"미성년 성추행 직원 무조건 해고 안돼"

法 "정당한 이유 있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더라도 직원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강제추행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연미란 기자

경찰관 때리면 구속… 법치질서 강화 나선다

집회·시위 때 폴리스라인 침범만 해도 현장검거 가능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도록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는 등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장기 로드맵을 세워 시기별로 핵심 과제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순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한 뒤 사후에 사법조치를 하거나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력에 폭력을 행사할 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폴리스라인의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자정 이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야간 옥외시위 금지는 지난해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야간 옥외집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해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하도록 했으나 국회가 대체입법 시기를 놓쳐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야간 옥외시위는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옥외집회는 사실상 시간제한 없이 허용했고, 옥외시위는 자정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사람에서 장비로' 교통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즉 단속은 무인장비가 맡고 경찰관은 정체해소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연미란 기자 actor@

'자녀 학대' 부모, 최대 2년간 친권행사 제한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부모에게 친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 등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내달 16일부터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연미란 기자

로또복권 제66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7	8	20	29	33	38	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708,173,188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2,080,254
3등	5개 숫자 일치	1,389,52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檢 '포스코 수사' 정점… 이상득 소환 임박

이병석 등 국감 끝나는 대로 조사 예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가 추석 연휴 이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상득(80·**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포스코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다. 소환 결과에 따라 포스코수사 제2라운드 진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검찰은 내달 8일 검찰·법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을 소환키로 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포항을 지역구로 둔 전 정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협력업체인 티엠테크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겪을 당시 이 전 의원이 포항시와 국방부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건설 허가를 받아낸 대가로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티엠테크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58)씨다. 티엠테크가 이 전 의원과 포스코의 자금통로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티엠테크의 수입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수입 중 15억원 가량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과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티엠테크에 이어 검찰은 포스코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 5곳을 최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일감을 따내는 과정에 이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재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일감몰아주기가 정 전 회장의 선임 이후와 맞물려 '보은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수순이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지도 관심이다. 앞서 검찰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돼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이을 차기 총장의 수사 의지도 포스코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뒷돈을 챙기고 포스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동화(64)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동창이 지난 25일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추석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수사의 향방을 가를 거란 얘기가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대상포진 60%, 50대 이상… 女 환자 1.6배↑

지난해 대상포진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상포진(질병코드 B02) 질환 건강보험 지급 분석결과를 보면, 2009년 45만명이었던 대상포진 환자는 2014년 64만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7.3% 증가했다. 작년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5.6%, 60대 18.5%, 70대 12.7% 등으로 60.9%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50대 이상 환자의 비중은 남성(56.9%)보다 여성(63.5%)에게서 더 높았다.

성별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6배 많았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신경 속에 있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동하는 질병이다. 피부에 띠 모양으로 발진, 수포가 생기며 극심한 통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포진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찾아 발병 초기부터 피부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통증 치료를 함께해 대상포진이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체력저하, 과로, 만성피로 등을 피하고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말과 함께 즐기는 제주의 가을 29일 오후 제주마방목지에서 말들이 한가롭게 초원을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동네의원 '토요일 진료비' 오른다

10월부터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경우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치과의원, 한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을 부담했다. 이후 2년에 걸쳐 매년 500여원씩 환자의 부담을 늘려가도록 조치했다. /연미란 기자

올 상반기 '아동학대'로 12명 사망

피해자는 5000명 넘어서
가해자 80%가 아이 부모

올해 상반기 동안 아동학대로 12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는 5000명을 넘어섰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의 가해자는 아이의 부모였다.

29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의 수는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7명이 숨진 작년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 사망자가 올해 나올 수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9471건에 달했다. 이 중 5432건(피해자 1명에 대한 아동학대는 1건으로 분류)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388건이 '조사 진행 중'으로 분류돼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처벌 강화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정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07년 5581건으로 급증한 뒤에는 2008년 5578건, 2010년 5657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1건 등으로 완만하게 늘어났지만 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섰는데, 상반기 추세로 보면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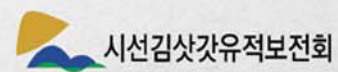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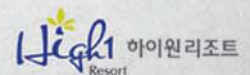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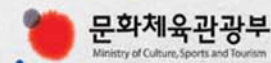
상반기 아동학대 사례의 가해자 중에서는 부모가 81.7%(4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친부가 전체의 47.6%(2583명)를 차지했으며 친모는 29.8%(1621명)를 기록했다. 또 계부·모는 4.1%(222명)였고 양부·모는 0.2%(13명)이었다.

한편 유치원 교사·교직원(88명), 보육교직원(245명)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6.1%(333명)로 집계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가 82.6%(4485건)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246건)이나 유치원(77건)인 경우는 5.9%(323건)였다.

아동학대 행위자 중 1468명(27.0%)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작년 고소·고발 조치가 내려진 비율인 15.0%보다 12.0%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또 287명(5.3%)은 '아동과의 분리' 조치를, 가장 많은 3493명(64.3%)은 지속관찰 조치를 각각 받았다. /유선준 기자 rsunjun@

www.ywtour.com
제18회
김삿갓문화제
蘭皐
10.9금 -10.11일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 일원
주최·주관
영월군
YEONGWOL COUNTY
시선김삿갓유적보전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원도
KANGWON PROVINCE
High1 Resort
하이원리조트

태평양 건넌 '삼성페이' 미국서도 통할까?

글로벌 본격 승부수 돌입 신성장 동력 가능성 주목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등 전 세계 주요시장에 출시될 삼성페이가 '모바일 페이 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페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정식 출시했다. 삼성페이는 미국에서 현지 이동통신사업자 AT&T·T모바일·스프린트·US 셀룰러 가입자 중 갤럭시 S6, S6 엣지, 노트5, S6 엣지+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의 미국 출시를 위해 마스터카드·비자·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주요 카드사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시티·US 뱅크 등 현지 주요 은행과도 협력을 체결했다. 향후 삼성전자는 더 편리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파트너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삼성페이를 이용해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결제기에 터치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와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모두 지원한다. 기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기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해 범용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B2B개발팀장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의 선도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를 미국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최대의 범용성을 갖춘 삼성페이가 사용자들을 지갑없는 라이프 스타일에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페이는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애플페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와 경쟁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삼성페이의 사용성을 주목하고 있다.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 페이는 NFC 결제 단말기만을 지원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NFC 단말기 보급률은 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페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출시 한 달여 만에 등록카드 수가 50만장을 넘어서며 사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도 국내 유통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삼성페이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페이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기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는 갤럭시 S6 등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4종 뿐이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탑재 기기 수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 사장은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삼성페이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페이의 글로벌 시장 성공여부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기능이 탑재되는 내년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판매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삼성페이의 글로벌 시장 성공여부는 중요하다"며 "서비스 지역 확대와 탑재 모델 추가가 예고된 가운데 경쟁 우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SUHD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美 차세대 지상파 방송 물리계층 표준규격 채택

삼성전자가 제안한 기술이 미국 차세대 지상파 방송규격 ATSC 3.0의 잠정 표준(Candidate Standard)으로 채택됐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잠정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은 ATSC 3.0의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으로 '차세대 오류 정정 기술(LDPC)', '비균일 성상도 방식 변조 기술(NUC)' 등이 포함됐다.

LDPC는 영상을 전송할 때 손실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복원하는 기술이다. 복원에 필요한 코드를 줄여 초고화질 영상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NUC는 고화질 영상을 수신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주파수 변조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을 위해 영상 전송 효율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ATSC는 이달 초부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해 삼성전자가 주도한 기술의 차세대 지상파 방송 규격인 ATSC 3.0의 잠정 표준 채택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에 채택된 잠정 표준은 내년 최종 표준규격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SK,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함께 뛴다

'최고등급' 후원 협약 정유·현금 지원키로

SK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더한다.

SK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1 빌딩 소재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SK측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영태 커뮤니케이션 위원장과 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SK는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유와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는 평창올림픽 최상위(tier 1) 후원사인 '공식 파트너'로서 △평창 올림픽에 필요한 정유 공급 △공식파트너 명칭 활용 △대회마크 사용 프로모션 △올림픽 현장내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제공받게 된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1 빌딩 소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공식 파트너 협약식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김영태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오른쪽)이 조양호 대회조직위원장에게 협약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SK 제공

평창올림픽 후원은 후원 규모에 따라 최상위 등급인 '공식 파트너(tier 1)', 중간 등급인 '공식 스폰서(tier 2)', 하위 등급인 '공식 공급사(tier 3)'로 나뉜다.

그동안 SK는 핸드볼 전용경기장을 만들어 기부하는 등 비인기 종목을 꾸준히 후원해왔다. 2014년부터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등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SK는 평창올림픽 지원에 앞서 최근 국내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후원했다.

조 위원장은 "SK는 핸드볼, 펜싱, 수영 등 비인기 종목 후원에 앞장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선도해온 대표적 기업"이라며 "이런 훌륭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스포츠 발전과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공동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범국가 행사인 평창올림픽에 SK가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SK는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8만 임직원 모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日서 디자인 경쟁력 입증

'굿 디자인상 2015' 18개 수상

일본 '굿 디자인 상'에서 'Best 100 design'으로 선정된 울트라 올레드 TV(왼쪽)와 코드제로 싸이킹. /LG전자 제공

LG전자 전략 제품들이 일본 최고 권위의 '굿 디자인 상'을 대거 수상했다.

29일 LG전자에 따르면 일본디자인진흥회가 주관하는 '굿 디자인상 2015(Good Design Award 2015)'에서 울트라 올레드 TV, 코드제로 싸이킹, 트롬 트윈워시 등 총 18개의 LG전자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최다 수상이다.

울트라 올레드 TV와 코드제로 싸이킹은 총 1338개의 본상 수상작 중 '베스트 100 디자인(Best 100 design)'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제품들은 '2015 레드닷 디자인상(2015 reddot design award)'에서도 각각 본상과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울트라 올레드 TV는 측면 두께가 5㎜대에 불과한 아트 슬림(Art Slim) 디자인과 안정적인 스탠드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다. 이 제품은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현존하는 TV 중 자연색에 가장 가까운 화질을 구현한다.

코드제로 싸이킹은 메탈 디자인을 통해 최고 성능의 무선 청소기 이미지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한진 기자

현대차 노조, 내일 교섭재개 일정 논의

집행부 임기·투쟁수위 조율
추석전 연속파업에 생산차질
폭스바겐 반사효과도 미미

추석 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에 실패하며 막대한 손실을 본 현대자동차 노사가 연휴 이후 교섭을 재개한다.

원만한 의견 조율을 통한 조속한 합의 도출로, 불어나는 생산차질을 막을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0월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사측과의 교섭 재개 일정과 파업 등의 투쟁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달 말로 끝나는 현 집행부 임기(2년) 연장 여부를 의논할 계획이다.

추석 전 사흘간의 연속파업으로 2000억원이 넘는 매출차질을 본 회사는 노조의 교섭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앞서 23~25일 파업으로 1만800여대, 223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는 파업으로 4만2200여대, 9100억원 규모의 매출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노조가 설립된 1987년 이후 올해까지는 파업으로 인해 14조원 이상의 매출차질이 발생했다.

1987년부터 2015년까지 28년간 노조의 파업 일수는 410여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자동차 125만여대, 14조2000여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사측은 추산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2일까지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 등에서 의견이 갈려 4년 만의 무파업 타결이 무산된 바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300만원 △무파업 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글로벌 판매 감소에 노조 파업까지 겹친 현대차가,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얻을 반사이익은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지난 2009~2010년 토요타의 가속페달 결함 사태 때의 반사이익보다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국내 완성차업체가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국내 자동차시장의 고객층은 국산차 소비 계층과 수입차 소비 계층으로 분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세계 1, 2, 3위의 부품 업체까지 보유하고 있다. 또 한일 업체 간 가격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자동차산업과 연관 산업은 저성장 저수익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면 제품, 공정,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관련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 하이브리드 명가 토요타에 도전장

내년 HEV모델 'AE' 출시 예고
美 시장 점유율 확보가 관건

토요타 프리우스V.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이브리드(HEV) 전용 모델 AE(프로젝트명)의 출시를 예고하면서 HEV 명가 토요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판되고 있는 현대차 HEV 중 쏘나타만이 선전하고 있고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K5·K7 HEV는 판매량이 부진한 상태다.

토요타는 일찌감치 연말에 신형 프리우스 출시를 위해 태국·중국 등의 생산 공정을 중단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시될 현대차 AE의 연비는 20㎞/ℓ다. 이는 프리우스 V의 연비 17.9㎞/ℓ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ℓ의 연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태로 인한 국내 규제변화가 AE 출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쏘나타 HEV의 연비는 18.2㎞/ℓ다.

쏘나타 HEV는 올해 1~8월 국내 시장에서 8334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146.4% 증가했다. 하지만 그 외의 라인업은 모두 판매량이 부진하다. 그랜저는 올해 1~8월 6692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25.6%가 줄었다. 기아차의 K5, K7 HEV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9%, 30.8% 줄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HEV는 토요타의 프리우스와 렉서스 ES300h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프리우스는 올해 1~8월 1000대 판매됐다. 렉서스 ES300h는 2680대 판매됐다. 이는 HEV 판매량 5410대중 약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대차가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미국 친환경차 전문사이트 하이브리드카즈닷컴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국 HEV 시장에서 토요타는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69.15%의 점유율로 미국 시장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다.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4.38%다.

이 때문에 AE 출시가 현대차 HEV 라인업을 한 가지 늘리는 것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토요타가 현대차보다 빠른 연말에 신형 프리우스를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면 기존 시장점유율을 더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다.

현대차 측은 경쟁업체 등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AE 출시를 연말에서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사태로 HEV를 비롯한 각종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기회를 현대·기아차가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박인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이 HEV 판매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토요타, 혼다 등 일본 메이커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한국타이어 '부스트랙' 레드닷어워드 대상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
韓기업 첫 최고상 수상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레드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2015'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해당 대상은 총 4680개의 출품작 중 하나의 작품에만 주어진다.

국내 기업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최초다.

이번 수상 작품인 '부스트랙(Boostrac)'은 한국타이어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2014'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 포츠하임 대학과 공동 연구로 탄생한 콘셉트 타이어다.

부스트랙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사막과 같은 모래 지형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변형 트레드 블록 구조를 통해 트랙션 성능과 입체적 접지력을 구현하도록 디자인됐다.

서 부회장은 "세계 최고 권위 디자인 어워드에서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가 최고 영예인 루미너리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타이어의 미래 드라이빙에 대한 비전과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다양한 혁신을 통해 미래 드라이빙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두타면세점 경쟁력은 지역상생"

동현수 두산사장 출사표
"동대문상권 발전 촉매
성장파이 함께 키울 것"

㈜두산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출사표를 던졌다.

동현수 두산 사장은 29일 "이번 면세점 특허신청은 '제로베이스'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따진다면 입지, 주변 상권과의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등 여러 면에서 '두타면세점'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은 동대문의 발전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동대문 발전은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이 함께 참여해서 성장의 파이를 같이 키우는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두산은 25일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서울 시내면세점 허신청서를 서울세관에 제출했다.

'지역 상생형 면세점'은 면세점 내 매장 및 면세점과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에 소상공인과 중소 패션 업체 등 주변 경제주체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권이 함께 만들어 가는 면세점'을 말한다.

두산은 면세점 입점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극대화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동대문 상권을 지금보다 확장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두산은 △인근 대형 쇼핑몰과 연계하며 'K-Style' 타운을 조성하는 '인근 쇼핑몰과의 상생'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시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역 내 역사탐방, 먹거리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골목상권과의 상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동대문 상권의 특징인 심야 쇼핑에 외국인 관광객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심야 면세점'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운영성과를 직접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대문 지역 브랜드를 발굴, 입점시킴으로써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 면적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갖출 방침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카카오 합병 1년 O2O향한 도전에 시장 '들썩'

모바일 생활 플랫폼으로 도약… O2O 서비스·글로벌 공략
사명 '다음' 뺀 '카카오'로 변경, 임지훈 신임 대표 선임

오는 10월 1일로 합병 1주년을 맞는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검색, 송금, 결제,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품은 종합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O2O(온오프라인 연계) 분야의 적극 진출을 선언한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성공시키며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1년은 카카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의 지난 1년에 대해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확대와 모바일 시대에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에 최적화된 기업 체질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라고 설명한다.

◆ O2O향한 도전에 시장 '들썩'

카카오의 대표적 O2O 서비스인 카카오택시는 지난 14일 현재 누적 호출 수 2000만건, 하루 호출 수 30만건, 가입 기사회원 수 15만명을 기록했다. 월평균 사용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에 힘입은 성과다.

카카오택시의 성공 요인은 모바일 서비스의 편의성을 이용해 택시 승객과 기사의 접근성을 좁혀 줬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편하게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 주고 카카오톡을 통한 안심메시지, 네비게이션과 연동된 목적지 안내 등 이용자를 배려한 섬세한 서비스 설계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생활의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카카오택시는 '카카오'에게 O2O 서비스의 가능성과 성공 사례를 안겨주면서 동시에 다음 계단을 오르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중순부터 운영하는 고급택시는 최근 2000만 누적 콜(9월 14일 기준) 카카오택시 첫 수익 모델이다. 카카오택시 운영 인프라와 노하우를 담았다. 서울시가 인·허가를 내주고 운영사 하이엔이 서울시내 택시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어 BMW, 벤츠 등 고급 차량 100대를 공급한다.

◆ O2O와 글로벌 공략에 '올인'

카카오의 수익 모델 부재는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다. 카카오택시뿐 아니라 대부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매출(4608억원)의 90%를 검색 광고(63.5%)와 게임(26.9%)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대리기사 택배 부동산중개 등으로 확대하는 온·오프라인 연결(O2O)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택시 호출 서비스에 비해 유료화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공략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5월 인도네시아 3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패스'를 인수했다. 패스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1000만명이 넘는 월평균이용자(MAU)를 확보했다.

조창옥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국내 1위 메신저 기업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모바일 혁신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망하다"며 "O2O와 핀테크(금융+기술), 글로벌 사업 등의 성과가 올 하반기 카카오의 실적과 위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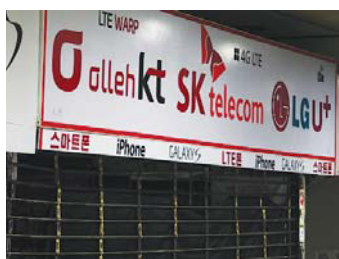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927만명 달해

내달 중순 1000만 돌파 예상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가 최근 900만명을 훌쩍 넘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각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SK텔레콤이 480만명, KT가 240만명, LG유플러스가 207만명 등으로 총 927만명에 달했다.

가입자 증가 속도로 볼 때 늦어도 10월 중순께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4~5월 일제히 음성과 문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 연령대별 이용 패턴을 고려한 데이터 요금제를 추가로 선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률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을 예상한다"며 "전체 무선 통신 가입자의 20% 가까이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 5년간 271억

300억원에 가까운 모바일 상품권이 이용 기간이 지나고서도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은 정해진 이용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누적액은 271억원에 달했다.

미환급액은 2010년 27억원, 2011년 44억원, 2012년 78억원, 2013년 111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산업도 급성장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4년에는 카카오톡이 직접 모바일 상품권 영업을 하면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졌다.

다만 2014년에는 정부가 업체의 환급 규정을 간소화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미환급액이 7억원에 그쳤다.

미환급액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10년 발생한 27억원은 올해 안에 환급받지 않으면 모두 소멸한다.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27억원이 올해 안에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금액은 사회공헌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LGU+, 홈IoT 온라인 광고 조회수 3천만 돌파

5초짜리 광고 6개로 큰 호응

LG유플러스가 지난 8월 온라인에 선보인 홈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광고가 40여일만에 조회수 3000만회를 돌파하며 일 평균 75만회, 1초에 8.6회의 광고가 노출됐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홈IoT 서비스를 하나씩 소개하는 5초짜리 광고 6개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며 "광고를 개시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만에 약 2만5000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다"고 설명했다.

홈 IoT 서비스 광고 모델로 배우 박보영이 새로 발탁됐다. 새로운 광고 영상은 LG유플러스 유튜브 공식 채널(https://www.youtube.com/user/LGupluslte)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lguplusblog)에서 영상 퀴즈를 풀고 공유한 고객 50명에게 미니 세탁기, 미니 청소기, 미니 밥솥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정문경 기자

KT, 부산시에 재난안전망 구축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

KT가 부산광역시의 재난영상 통합망 인프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KT는 부산시의 주요 지역에 CCTV, 관측장비 등의 인프라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람이 잦은 부산시내 9개 하천에 수위, 강우 센서 등을 설치해 유역 범람·침수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부산시에 구축돼 있는 재난안전플랫폼에 KT의 사물인터넷(IoT) 통합 플랫폼 'IoT 메이커스'를 접목해 다양한 센서를 추가로 구축해도 쉽게 확장, 관리가 가능한 단일플랫폼으로 개선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축적과 분석체계를 마련해 상습침수 하천에 대한 침수와 범람을 예측하고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표준 운영 절차를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통합 재난안전 체계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은 "KT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IoT 플랫폼과 빅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 예방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함께 민-관-연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와 산업단지,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원(KIST)와 재난안전 분야 핵심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하는 등 미래융합사업 중 하나인 재난안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예방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美금리 불확실… G2 경제지표 주요 변수

국내 증시 1900선 안팎 박스권 장세 이어갈 전망
10월 FOMC 이전까지 美 이슈가 금융시장 지배할 것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는 12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있지만 옐런 의장이 10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내비친 상황이어서 국내 증시 또한 1900선 안팎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월 코스피지수는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 제거 기대와 미국 경기 정상화에 대한 확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등의 효과로 상승 기조를 보이다 FOMC 이후 반등요인을 잃으며 하락 전환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지난 1일 1934.44에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25일 1942.85에 마감했다. 종가기준 8일 1878.68까지 떨어진 지수는 18일 1995.9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20포인트 가까이 변동폭을 넓혔다.

10월 국내 증시는 뚜렷한 주도업종 없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동결 이후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를 증시의 주요 변수로 점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중국 8월 경기선행지수(28~30일)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1일) ▲중국 9월 PMI 제조업 지수(1일) ▲미국 9월 실업률(2일) ▲중추절·국경절로 중국 증시 휴장(28일, 1~7일) 등 이슈가 마련돼 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의 시장 컨센서스는 50.6p로 전월(51.1p)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제조업 지표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이어 "중국의 9월 PMI 제조업 지수의 시장 컨센서스는 49.6p로 전월(49.7p)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며 "앞서 9월 차이신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47.0p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국가통계국 PMI 제조업지수 역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G2의 경제 지표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중국 증시 휴장은 지수 낙폭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중순 이후 중국 증시 관련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된 만큼 중국 증시가 중추절 및 국경절에 휴장에 들어가면 잠재적인 부담거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10월 FOMC(27~28일) 이전까지는 미국 금리결정 관련 이슈가 국내외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중국 연휴 및 국내 소비진작 정책과 관련된 유통과 운송 업종 등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실적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진혁 SK증권 연구원은 "통신서비스, 자동차는 시장대비 변동성이 낮으면서 펜더멘탈 매력과 모멘텀(배당, 신차출시, 원화약세)을 보유한 능동적 방어주로 구분된다"며 "또 통상 은행, 증권은 금리 방향에 따라 상이한 흐름을 보이지만 두 업종 모두 연간 및 분기 추정치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추천했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10월 중국의 국경절,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 면세점 등 중국 관련 소비주와 유통, 자동차 등 소비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며 "더불어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주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쇼핑株 주목 추석 명절을 지낸 투자자들의 눈길이 소비재 업종인 쇼핑주에 몰리고 있다. 통상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은 쇼핑업체 '대목'으로 꼽혀 판매가 급증,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에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성수기 분위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3000억 줄 듯

반도체 부문은 늘어날 전망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6조6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망대로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분기 6조8979억원보다 2950여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전망치는 3개월 전 시점의 전망치 7조4897억원, 1개월 전 시점의 전망치 6조8113억원에 비해 각각 12%, 3% 낮아진 것이다. 3분기 실적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KB투자증권 이가근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은 전반적인 IT수요의 부진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 부문이 부진할 전망"이라며 "3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은 6조345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들은 3분기 스마트폰이 주력인 IM부문의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2조7600억원)에 비해 20% 가량 줄어든 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의 경우 지난 2분기(3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증권 이세철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D램 가격 약세에도 불구, D램 20나노(nm) 공정전환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대로 전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26조123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3개월 전 시점 전망치 28조2362억원에 비해 13.3% 가량 낮아진 것이다.

/차기태 기자

올해 신규상장 100개 넘었다

10월 이후에도 줄줄이 대기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IPO) 붐이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신규상장한 기업이 100개를 넘어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 12개사, 코스닥 시장 65개사, 코넥스 시장 24개사 등 10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상장, 일부 이전상장, 재상장 기업을 합한 것으로, 작년 한해동안 상장된 113개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미 작년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 두 시장에서 각각 12개사, 67개사가 상장했다.

거래소는 애초 코넥스 시장을 포함한 올해 신규상장 목표를 170개에서 220개사로 올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에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상장 목표를 달성할 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이후에도 '대어'급 기업들이 줄줄이 증시 입성을 기다리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다음 달 2일 LIG넥스원이 순수 방위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상장된다.

AK홀딩스의 자회사인 제주항공은 11월 초 상장될 예정이다.

온라인 게임업체 더블유게임즈도 11월쯤 코스닥 상장 예정이다.

이밖에 연우, 나무가, 네오오토,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아이진, 엠지메드, 리드 등도 연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차기태 기자 folium@

국내 주식형 펀드, 한 달간 1조5000억 유입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주식형 펀드로 1조5000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자 투자자들이 저가 투자에 나선 때문이다.

29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지난 24일 기준 1조5011억원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액티브(성장) 주식 일반형 펀드의 설정액이 4492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액티브 주식 중소형 펀드로는 2791억원, 액티브 주식 배당형 펀드로는 1784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액티브 주식펀드 수익률은 배당형 펀드가 2.51%로 가장 높고 일반형 펀드(2.14%)와 중소형 펀드(1.29%)가 뒤를 이었다.

국내 채권 혼합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도 각각 473억원과 3328억원 증가했다. /김보배 기자

상반기 금융지주사 순이익 대폭 증가

8곳 순익 작년比 25% ↑
신한, 1조4144억 '최고'

올 상반기(1~6월)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지분 매각에 따른 일시적 이익이 생긴 데다가 새로 편입된 계열사의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은행지주사의 총자산은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 증가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은행지주사의 연결기준 올 상반기 순이익은 4조107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0%(8408억원) 감소했다.

은행지주회사별 연결반기순이익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우리	신한	하나	KB	SC	산은	씨티	BNK	DGB	농협	JB	합계
'14년 상반기	13,380 (11,960)	11,034 (11,360)	5,676 (6,104)	7,722 (7,652)	△147 (△386)	3,961 (5,739)	△668 (△816)	2,053 (2,009)	1,107 (1,261)	5,082 (5,250)	278 (290)	49,478 (50,422)
'15년 상반기	–	14,144 (12,841)	7,417 (7,488)	9,256 (9,446)	757 (1,150)	–	–	3,159 (3,194)	1,690 (2,004)	4,104 (4,370)	543 (606)	41,070 (41,099)
증감 <증감률>	△13,380 –	3,110 <28.2>	1,740 <30.7>	1,534 <19.9>	904 <‥>	△3,961 –	668 –	1,106 <53.9>	583 <52.7>	△977 <△19.2>	265 <94.9>	△8,408 <△17.0>

* ( )는 대손준비금 적립전 연결반기순이익 /자료=금융감독원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감소일 뿐이고, 작년 하반기에 지주사-은행 간 합병으로 해산한 우리지주, 씨티지주, 산은지주의 지난해 상반기 실적을 제외하고 8곳만 비교해 보면 오히려 25.2%(8265억원) 늘었다.

업종별 순이익 구성은 은행부문이 67.1%로 가장 컸고 비은행(19.8%), 금융투자(8.1%), 보험(5.0%) 순이었다.

지주사별 상반기 순이익은 신한(1조4144억원), KB(9256억원), 하나(7417억원), 농협(4104억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한, 하나, KB 등 3개 지주사의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 주식 보유분을 팔아 생긴 이익이 4500억원 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BNK와 JB지주는 지난해 10월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신규 편입함에 따라 상반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지주사들의 연결총자산은 1574조9천억원으로 작년 말(1499조9천억원)보다 5.0%(75조원) 늘었다. 대출채권이 28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 상반기에 대기업 대출은 4조원 줄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은 각각 31조2천억원, 7조8천억원 늘었다.

지주별 자산은 신한(359조4천억원), 하나(332조5천억원), 농협(324조6천억원), KB(317조3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6월 말 현재 은행지주사들의 연결기준 총자본비율은 13.64%로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기본자본비율은 11.36%로 0.20%포인트 상승했다.

지주사별로는 KB(15.86%)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고 BNK(11.30%)가 가장 낮았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국민연금, 연금제도 만족도 '꼴찌'

공적연금, 2년연속 1위

국민연금이 보험소비자 대상 연금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연구원의 2014년, 2015년 소비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4개 연금에 대한 만족도에서 국민연금이 5점 만점에 지난해 3.35점, 올해 3.53점으로 모두 최하위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매년 4~6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보험산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금 만족도는 해당 연금 가입자에 한해 진행됐다.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지난해 4.24점에서 올해 4.05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엔 개인연금(3.69점)과 퇴직연금(3.67점)이 2, 3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나란히 3.69점을 받았다.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42.2%에서 올해 52.6%로 늘었고 불만족한다는 답은 11.1%에서 4.5%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조사에서도 퇴직연금(0.7%), 개인연금(1.0%)보다 불만족도는 높았다. /김보배 기자 bobae@

농협은행, 스마트워치 이용 ATM 출금서비스 실시 NH농협은행은 스마트워치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NH워치뱅킹 모바일 ATM출금서비스'를 3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전국의 농협은행과 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하루 30만원 한도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안드로이드 OS용 스마트워치에 우선 적용하고 10월 중 타이젠 OS와 애플워치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제공

저축은행,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 벌어

저축은행이 대출로 받은 이자와 예금에 준 이자를 뺀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로 받은 이자는 2조9344억원, 예금에 준 이자는 8950억원으로 2조394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낸 것은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 가운데 연 25% 이상 고금리를 받는 대출이 73.4%를 차지했다.

연 3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도 1조757억원으로 전체(5조7천65억원)의 29.8%를 차지했다. 연 25~30%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2조489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3.6%로 나타났다.

10%대 중금리 대출은 약 13.9%에 그쳤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평균 금리는 연 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금리는 SBI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37.93%였다. 더블저축은행이 가장 낮은 11.92%를 부과했다.

/차기태 기자

인터넷은행 예비신청 오늘부터 접수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이 개정되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4%,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금융권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금융사와 ICT기업의 조합이 많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다.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이 참여한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주도로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 12곳으로 구성돼 있다.

500V컨소시엄은 중소벤처기업 연합군 성격이다.

금감원은 신청서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 올릴 예정이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에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12월까지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차기태 기자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종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달 메머드급 분양 앞두고 '숨고르기'

주간 분양캘린더

부산 1곳만 40가구 청약 견본주택 오픈 2곳 그쳐

10월 둘째주 11만가구 공급 경기서 5만1241가구 '최다'

9월 넷째 주 분양시장은 추석연휴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청약은 전국 1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모델하우스 오픈도 다산신도시 아이파크 등 2곳에 불과하다.

29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9월 넷째주(28일)부터 10월 첫째주(2일)까지는 부산 '부산범천더샵골드3차' 40가구만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금오종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범촌동 841-1번지 일대에 '부산범천더샵골드3차'를 공급한다. 지상 14층 1개 동 규모 55~81㎡ 40가구다. 청약은 9월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8일이다. 계약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입주는 10월 예정이다.

당첨자발표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신흥도시개발지구 1블록 'e편한세상평택용이' 56가구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 경기 파주시 야당동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2차' 등 14개 단지다.

계약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3곳이다. 올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송월지구양우내안애'를 비롯해 경기 화성시 송산면 '화성송산그린시티EAA2EGthe1' 충남 천안시 다가동 '천안일봉산해피트리' 등이다. 계약은 9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2개 사업장에서 예정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지금동과 도농동 일대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C-3 블록에 '다산신도시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지하1층~지상29층 5개 동 규모 84~97㎡ 467가구다.

8호선 연장 다산역(예정)으로 잠실역까지 9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다. 초·중·고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교육환경이 탁월하며 단지내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는 전가구가 남향위주로 배치돼 채광성·개방감이 뛰어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10월 2일 남양주시 지금동 69번지에 오픈 예정이다.

10월 둘째주인 5일부터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물량인 약 11만가구가 분양된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10월에는 전국에서 138개 단지, 10만8045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곳 6323가구, 경기 57곳 5만1241가구, 인천 6곳 4974가구 외 지방 58곳 4만5507가구 규모의 물량공급이 예정돼 있다.

임대와 오피스텔의 공급은 비교적 적다. 임대 물량은 10곳에서 7177가구 분양된다. 오피스텔은 9곳에서 3437실이 공급된다.

공급 물량 증가는 건설사들이 겨울철 비수기 전 분양을 마무리 지으려는 움직임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치솟은 전세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9월 마지막주 상세 분양 일정

날짜	구분	시	아파트명
9월 30일	접수	부산	부산범천골드더샵골드3차 1순위
	발표	경기	기흥역파크푸르지오 *
			기흥역파크푸르지오
		전남	광주전남혁신B3사랑으로부영임대(민중국)
	계약	경기	화성송산그린시티EAA2EGthe1
		전남	나주송월지구양우내안애
		충남	천안일봉산해피트리
10월 1일	발표	경기	군포송정B1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인천	인천가정지구제일풍경채 (4 B/L)
		부산	부산경보이리스힐해운대아파트
10월 2일	오픈	경기	다산신도시아이파크
		전북	전주만성지구법조타운골드클래스(B-3 B/L)
	접수	부산	부산범천골드더샵골드3차 2순위
	발표	서울	마곡10-1단지(공공분양)
			마곡11단지(공공분양)
			마곡12단지(공공분양)
			마곡8단지(공공분양)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
			문래역모아미래도
		경기	남양주마석역우방아이유쉘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2차
			e편한세상평택용이(신흥지구 1 B/L)

* : 오피스텔

/부동산114 제공

가을, 혁신도시 분양물량 쏟아진다

전국 4곳서 2928가구 공급

추석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전국 지방혁신도시 4개 단지에서 2928가구의 분양이 이뤄진다.

29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연내 충북, 전남 광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추석 이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4개 단지 2928가구다.

7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2008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시작으로 전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4곳의 74%인 114곳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했다. 내년 말까지 나머지 기관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도 지방 혁신도시에서 신규 물량을 쏟아낸다.

가스안전공사와 정보산업진흥원 등 7곳이 이전을 마친 충북혁신도시에서는 10월 건영과 양우건설이 C-2블록에 '건영아모리움 양우내안애' 전용면적 84㎡ 842가구를 분양한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는 10월께 대방건설이 C3·B16블록에 '대방노블랜드 1차' 765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에는 대방건설이 12월 A7블록에 74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며 라온건설은 A2블록에 '라온 프라이빗' 422가구를 분양한다.

한편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서한이다음'과 'LH 5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각 2억5990만원에서 3억1990만원, 2억10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6000~7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 'LH이노밸리' 전용면적 84㎡의 현재 매매가는 2억3500만원대로 분양가 1억6400만원보다 7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박상길 기자

8월 미분양 3만1000여가구 전월比 4.5% 1479가구 줄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3만1698가구로 7월보다 4.5%(1479가구)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889가구로 7월보다 0.3%(47가구) 줄었고 지방이 1만5809가구로 8.3%(1432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7813가구로 7월보다 90가구, 85㎡ 이하는 2만3885가구로 7월에 비해 1389가구 감소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7월보다 217가구 감소한 1만1845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미분양에서 해소된 물량은 수도권 3249가구, 지방 3138가구 등 6387가구였다.

건설사, 하반기 공략 키워드 '여심전심'

교육·설계·편의 등 꼼꼼 체크 "女心 잡은 곳, 시세 상승 높아"

건설사들이 하반기 수요층 공략 키워드를 여심전심(女心傳心)으로 잡았다. 여성 소비자들이 고르면 가족 모두가 만족한다는 뜻이다.

여성 소비자들은 새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리면 미리 정보를 찾아 입지와 주거환경, 미래 가치 등을 가족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꼼꼼히 따진다. 또한 견본주택이 오픈하면 유닛을 살피며 수납, 설계가 유용하게 적용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고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은 자녀의 교육부터 설계와 입주 후 주거 편의까지 고려해 집을 고른다"며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입지와 설계, 생활 편의 등 탁월한 요건을 갖고 있어 상품성이 좋고 추후에도 거래가 활발해 시세 상승 여력이 높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10월 분양 예정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에는 젊은 여성부터 중년층 여성 수요자를 사로잡는 서울 남산도서관 2배 규모의 라이브러리 파크 시설이 들어선다. 라이브러리 파크 안에는 750m의 스트리트몰과 시립유치원 등 자녀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교육여건이 조성된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5단지 투시도.

스트리트몰은 의료존과 교육존, 푸드마켓존, 편의존 등으로 분리해 입주민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외에도 대형도서관과 호수를 연계한 수변데크가 마련돼 독서 후 호수 주변을 거닐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탁월한 입지와 교육환경으로 학구열이 높은 '맹모'의 마음을 공략하는 단지도 있다. 최근 맹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인근 아파트나 자녀의 통학 안전을 위해 단지와 가까운 곳에 학교가 마련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물산은 10월 성북구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에 2000가구 규모의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를 선보인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비롯해 유치원 1개소, 키즈 클럽 등 보육과 교육 테마를 강화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될 예정이다. 영훈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CGV 등 편의시설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다. 북서울 꿈의숲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내년에는 동북선경전철이 착공 예정으로 주요 도심으로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10월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에 분양 예정인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는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건영·양우건설이 10월 충북혁신도시 C-2블록에 공급하는 '건영아모리움 양우내안애(愛)'는 유해시설이 없는 주거 환경을 갖춰 학부모 수요에 선호가 높다. 도보 1분 거리에 옥동초등학교가 있고 석장중·고교가 개교 예정돼 있으며 초·중·고교가 모두 도보권이다. 5분 거리에 공공도서관과 공립유치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추석선물세트 판매 '호호'

롯데百, 사전예약판매 전년비 두배 늘어… 본판매 10.2%↑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계의 올해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로 5월 105에서 6월 99까지 급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힘입어 7월 100, 8월 102, 9월 103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의 7~25일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식품군별로는 청과가 21.4%로 가장 많이 신장했고 ▲건강식품군 20.5% ▲주류 14.5% ▲한우 10.9% 순이었다.

건강식품의 경우 5만~7만원대 비타민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고 한우는 10만원대, 청과는 7만~8만원대 실속 선물세트가 주로 판매됐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한 추석선물 예약 판매기간에도 판매가 98.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판매율이 130% 증가했다. 이어 주류가 100%, 청과 75%, 한우 6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과일 선물세트 코너에서 제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이 11~26일 추석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5.3% 신장했다. 부문별로는 청과가 11.2%로 가장 높았고 ▲정육 9.3% ▲건강 5.1% ▲수산물 1.5% 순이다.

청과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5~7% 저렴해지면서 사과 판매율이 13.5%로 가장 높았으며 배가 12.1%로 뒤를 이었다. 올해 처음 출시한 '사과·배 정세트(5만원)'은 준비된 물량 3000세트가 완판됐다. 지난해보다 늦은 추석으로 30~40% 가격이 저렴해진 자연송이는 올해 550kg이 판매되며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더 팔렸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추석 예약판매 실적도 54.5% 신장했다. 청과가 91.4%로 가장 높았고 생선 63.8%, 한우 58.1% 순으로 나타났다.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판매한 추석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11% 신장했다. 공산품이 36%로 가장 많이 신장했고 ▲야채 26% ▲수입식품 등의 델리카 18% ▲와인 14% ▲건식품 13% ▲생선 12% 순이었다.

가격대별로는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가 전체 매출비중의 12%를 차지했다. 대형마트도 이번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기간 매출은 25% 신장했다. 이달 14~22일 본판매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1.7% 늘었다.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의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추석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아이파크百 "명절증후군 퇴치 서비스 받으세요" 29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4층 '토쿠요' 매장에서 여성들이 '명절 증후군 퇴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이파크백화점은 '포스트 추석 마케팅'을 펼쳐 집안일로 피로가 쌓인 주부와 여성들을 위해 '명절 증후군 퇴치 서비스'를 열고 다음 달 25일까지 전 품목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가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편의점 매출, 담뱃값 인상덕 '톡톡'

전년 동월比 34.3%↑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담배 판매 급증에 힘입은 편의점 매출만 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발표한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3% 증가했다. 이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7.6%, 백화점은 6.5%, 기업형 수퍼마켓은 1.7% 각각 하락했다.

편의점의 매출 증가는 담뱃값 인상 효과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됐다.

편의점 매출 가운데 '담배 등 기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8.1% 증가했다. '담배 등 기타'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 수준으로 나머지는 의약외품 등이다.

담배 매출은 가격 인상이 이뤄진 연초에 비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 등 기타' 매출은 1월 5.3%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2월 7.7% ▲3월 46.4% ▲4월 53.5% ▲5월 58.9% ▲6월 62.2% ▲7월 65.4%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SSM의 매출은 지난해와 달리 추석 명절이 9월 말에 있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8월의 경우 매출에 9월 초 추석 명절 특수가 일부 반영됐다.

상품군도 추석 명절 관련 품목의 매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식품군 매출 하락률은 백화점이 25.3%로 가장 컸다. 이어 대형마트 9.2%, SSM 1.3% 순으로 집계됐다. 의류는 ▲대형마트 5.0% ▲백화점 4.0%, 잡화는 ▲편의점 28.4% ▲백화점 6.8% ▲대형마트 5.3% 등으로 나타났다.

/박상길 기자

국내 중소맥주, 수입맥주보다 세금 최대 4배

"낮은 주세율 적용해야"

국내 중소기업맥주와 하우스맥주(이하 중소맥주)가 대기업 맥주와 수입 맥주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높은 세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잘못된 주세법으로 인해 맥주 대기업 두곳이 80년 넘게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고 다양한 저가 수입맥주 수입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라 중소맥주의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맥주기업 규모별 면허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맥주업체는 지난해 기준 5곳에 불과했다. 하우스맥주 업체는 2005년 112곳에서 지난해 49곳으로급감했다.

반면 수입맥주에 대한 인기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맥주 수입현황에 따르면 벨기에산 맥주 수입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독일 49%, 중국 25%, 네델렌드 14%로 뒤를 이었다.

현행 주세법 상 모든 맥주에는 출고가격 또는 과세가격(수입금액+관세)의 72%에 해당하는 주세가 동일하고 부과되고 있다.

세금은 1리터를 생산하든 100리터를 생산하든 동일한 주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량 생산시설을 갖춘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 수입맥주의 경우도 저가로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 낮은 주세가 부과된다.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340㎖당 699.49원으로 대기업의 286.37원 대비 2.44배나 많다. 수입맥주의 주세는 340㎖당 191원이다.

향후 FTA 협정에 따라 수입맥주의 관세율이 0%가 될 경우 중소맥주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홍 의원은 "저가의 수입맥주로부터 국내 맥주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맥주에 대한 낮은 주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추석에 무거워진 몸 '힐링푸드'로 극복하세요

추석연휴 동안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끼 정도 가벼운 저칼로리 대용식을 먹는 것이 좋다.

농심 켈로그의 '스페셜K 레드베리'는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이섬유 및 단백질이 다른 제품보다 더 강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끼(1회분 40g)당 열량이 144칼로리(kcal)다. 스페셜K 제품 중 칼로리가 가장 낮다.

대상 청정원이 출시한 '다이어트 누들'은 면 요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다. 100g당 5kcal 수준의 곤약면에 액상소스와 고명을 더한 제품으로 곤약에 포함된 글루코만난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배변활동에 도움을 준다.

동원F&B의 '자연한입 고구마'는 엄선한 국산 고구마를 정성껏 말려 고구마의 풍미와 식감을 살린 말랭이 간식이다. 100% 원물 그대로의 제품으로 고구마 외에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아 믿고 먹을 수 있다.

풀무원건강생활 유산균 음료 전문 브랜드 풀무원프로바이오의 '식물성유산균 코코넛밀크'는 코코넛밀크를 식물성유산균으로 발효시켰다. 풀무원 특허 식물성 유산균이 100억 CFU 함유돼 있어 장에 좋다.

/박상길 기자

"창의적 사고, 행복한 가정에서 출발"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㉓대상

대상그룹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요리체험교실인 '청정원 쿠킹클래스'를 열고 있다. 사진은 '우리아이와 함께하는 피크닉 요리 여행'을 주제로 열렸던 청정원 쿠킹클래스 수업.

대상그룹(대표 명형섭)은 '창의적인 사고는 행복한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아래 1956년 창립 이래 기업분위기 쇄신을 위한 작업을 실시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2009년 대상은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입고 있던 회사의 유니폼을 벗어 던졌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복장자율화를 시행했으며, 직원들은 근무 시 노타이에 캐주얼 복장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출근하고 있다.

보수적인 한국의 기업문화 특유의 엄격한 상하관계를 없애고 자율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첫 걸음이었다.

또한 대상은 화목한 가정을 중시하며 저녁 7시 이전 강제퇴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근면성보다는 창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창의적 사고는 행복한 가정에서 나온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오후 5시 30분이 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며,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도 최소한 저녁 7시 전까지는 무조건 퇴근해야 한다. 일종의 강제퇴근 정책이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사장이 직접 나서 정시퇴근제 실천여부를 점검할 정도다. 당일 저녁 7시 이후 PC 접속자 현황이 다음날에 각 부서별로 신속하게 전산 업데이트 돼 사장에게 보고되며, 각 부서 임원들과도 공유한다. 이렇게 누적된 정시퇴근현황 자료는 '정시 퇴근율'이라는 수치로 관리해 연말 인사고과와 부서평가에 반영된다. 이렇다 보니

매월 둘째 금요일 '가족사랑데이' 전 직원 5시30분 일제히 집으로

어린이집 개원·해외여행 지원 등 복지혜택·가족친화경영 폭 확대

대상에서는 일반 기업에서 보기 힘든 진풍경이 연출될 때도 있다.

정시퇴근제와 별도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는 모든 직원이 5시30분 정각에 일제히 퇴근하는 '가족사랑데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사랑데이가 되면 전국의 영업조직은 오후 2시에 실적을 사전 마감해야 하며 5시 30분 정각이 되면 사무실의 모든 전원과 PC를 끄고 퇴근해야 한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본사부터 현장의 영업조직까지 '남들 일할 때 노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탓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행부터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9203억원으로 떨어진 대상 연간 매출은 정시퇴근제 도입 원년인 2009년에 1조90억원으로 식품업계 1조 클럽에 재진입했으며, 2014년에는 연결기준으로 2조6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과 업무집중도 증가로 풀이된다. 직원들의 창의력은 2009년에 현실화 돼 주력 제품인 고추장의 주원료를 밀가루에서 우리쌀을 거쳐 현미로 바꾸는 혁신을 이뤄냈다.

이밖에 사원 개개인의 휴식과 안정을 통한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 원하는 시기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리프레시 데이'를 비롯해 5일 이상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리프레쉬데이'를 본부장과 팀장급을 선두로 권장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고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 '청정원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대상은 직원들의 창의력 개발과 도전정신 함양을 위해 임직원 해외 다문화체험 프로젝트인 'ACE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4명 단위의 팀을 만들어 해외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는 각 반기별 1회에 걸쳐 4~5개 팀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 시행 후 지금까지 총 200여명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지원받고 있다.

명형섭 대상 대표는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창의력인데,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력은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현재 사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임직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대상그룹 가족친화경영 주요 제도

제도	세부 내용
연차의무사용	개인 연차 100% 의무 사용
장기리프레시	개인 연차 5일 이상 연속 사용 의무화
연간 휴무예고제	연간 샌드위치데이 등 일괄 휴가 지정
청정원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운영
정시퇴근제	17시 30분 정시 퇴근제 시행
워크다이어트	불필요 업무 조정을 통한 정시 퇴근 지원

공동기획 :

주말은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은 평일 근무시간에

월1회 근무시간 중 3시간 의무화 1인당 연평균 40시간 봉사 참여

대상그룹의 가족친화경영은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는 형태에서도 눈에 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달리 대상은 반드시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 외의 시간과 주말은 철저하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는 대목이다.

대상은 평일 근무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대상은 2006년 처음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전 임직원이 매월 1회 3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평일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했다. 대상 임직원 1인당 월 평균 3.38시간, 연간으로 따지면 40.56시간 동안 근무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대상그룹 직원합창단 드림콰이어 공연 모습.

/대상그룹 제공

만약 주말과 근무시간 외 봉사활동을 추구했다면 위 해당시간 만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은 셈이다.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명형섭 대상 대표는 평일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애사심을 키우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해왔다.

명 대표의 이같은 믿음은 최근 몇 년 간 대상의 성과가 증명한다. 대상의 매출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9.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2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투입되는 노동의 양보다 수준 높은 창의력이 성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명 대표는 "앞으로도 평일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창의력 발현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평일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주사 한 대면 10분만에 오똑한 코

코앤아이

얼굴 이미지 결정하는 '코'
성형수술 대신 코필러 제안
조직함몰·상처치료도 효과

10여 분 만에 오똑하고 예쁜 코를 만들기 위한 성형이나 필러시술을 누구나 관심있어 하는 시대다. 코는 얼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주요 부위로 사람의 코모양이 저마다 다른 만큼 코 성형 기법도 다르다.

간편하고 부담없이 코 성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코필러다. 코 성형수술에 비해 회복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필러란 정확히 어떤 물질을 말하는 걸까. 주로 다양한 천연·인공 혹은 합성 물질들로 이루어진 필러는 피부에 주입되어 연조직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제조된다. 최근 들어서는 그 쓰임새가 더 다양해져 세포 손상이나 조직 함몰, 상처 치료에도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필러는 유지 기간에 따라 단기 필러, 중기 필러 그리고 반영구적 효과를 내는 장기 필러로 나뉜다. 여기서 유지 기간이란 필러물질이 해당부위에서 녹는 기간을 뜻한다. 흔히 사용되는 단기필러는 주로 히알루론산(HA)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필러의 종류는 칼슘필러(래디어스, 페이스템)와 히알루론산 필러인 레스틸렌 서브큐, 퍼펙타 서브스킨, 이브아르 컨투어 등이 있다. 레스틸렌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식물성분으로 빰과 입의 경계부 주름, 윗 입술, 입가주름, 미간의 깊은 주름 등 얼굴 부위의 깊은 주름을 보충하는 데 유용하다.

페이스템은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필러중 인터폴, 아테콜등과 같이 효과가 지속되는 필러다. 보톡스처럼 속에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이 파인 것처럼 보이는 주름있는 부위의 속을 채워 평평하게 해준다.

이외에도 필러 시술에는 팔이나 배, 허벅지, 엉덩이 등의 잉여의 지방이 있는 곳에서 지방을 흡입한 후 미세한 정제 과정을 거쳐 지방이 부족하고 함몰된 부분을 채워주는 자가지방이식, 보툴리눔 독소(보톡스)의 소량을 얼굴 표정근육(이마·미간·눈꼬리·콧등)에 주입해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주름을 제거해주는 보톡스 방식이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핫'한 제조로 졸음 날리세요

롯데칠성음료 '핫식스'

롯데렌터카 이용자 대상
졸음방지·안전운전 이벤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롯데렌터카와 손잡고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졸음운전 방지와 안전 운전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졸음운전 방지에 제격인 에너지음료 핫식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렌터카(www.lotterentacar.net) 전국 95개 지점에서 단기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핫식스의 드링크 버전인 '핫식스샷'을 증정한다. '졸음운전 NO!, 졸릴땐 핫식스' 콘셉트와 함께 졸음예방을 위한 'HOT한 6가지 체조' 등이 포함된 안전운전 홍보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는 계약 건당 핫식스샷 1병씩 증정하며 총 6만병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롯데칠성음료는 롯데렌터카가 제공하는 10분 단위 무인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 '그린카(www.greencar.co.kr)'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30일까지 그린카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총 3000명에게 핫식스와 교환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롯데렌터카와 그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타우린, 천연 과라나추출물 등 6가지 기능 성분을 담은 에너지음료 핫식스로 졸음을 날려버리고 활력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핫식스'는 천연 과라나추출물, 타우린 1000㎎, BCAA 아미노산, 홍삼, 가시오가피, 비타민B군 등 6가지 원재료가 들어간 한국형 에너지음료다. 인공색소나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고 브라질의 건강식품이자 천연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과라나를 주 원재료로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2월에는 기능 성분인 비타민C 500㎎를 새롭게 추가하고 탄산을 넣지 않아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인 드링크 버전 '핫식스샷'을 출시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깜깐 와타나랑꾼 태국 관광스포츠부장관(오른쪽)과 태국 전통춤 복장을 입고 시범 공연을 펼치고 있는 엄혜령. /태국관광청 제공

홍콩 배우 엄혜령·임달화 "방콕 안전해요"

태국관광청

연예인 초청 관광회복 캠페인
에라완 사원서 참배행사 열어

태국정부관광청은 최근 타이항공과 공동으로 홍콩 유명 영화배우인 엄혜령과 임달화를 방콕으로 초청해 라차쁘라송 에라완 사원에서 '방콕 안전해요' 이벤트를 연 뒤 참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유타삭 수파손 태국관광청장은 이날 "주요 관광지로서의 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국관광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태국 관광회복 캠페인에 태국을 사랑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명 미설로 널리 알려진 엄혜령은 홍콩 드라마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특히 드라마 'Princess of the Wuxia'에 주연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에는 '2008 TVB 기념제'에서 최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에는 광저우 TV 어워드, 2009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로 세 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기도 했다.

홍콩 영화배우인 임달화는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태국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명으로 국제영화제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태국관광청은 이외에도 유명 영화배우이자 요리 관련 컬럼리스트인 마이클 람과 유명 TV진행자이자 MC인 데렉 리, 여행작가이자 TV시리즈 타일랜드 아이언 쉐프의 진행자인 로져 우 등 홍콩의 유명인사들을 방콕으로 초청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박상길 기자

임진각서 '통일의 꿈' 품고 달린다

2015 손기정 마라톤대회

내달 25일 평화누리공원
풀코스 등 4개부문 진행

손기정기념재단(이사장 김성태)은 10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2015 손기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광복70년을 기념하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마련됐다.

마라톤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시작해 자유로와 통일대교, 판문점 입구인 JSA삼거리 그리고 도라산역을 순회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풀코스(42.195㎞), 하프코스(21.095㎞), 10㎞ , 6㎞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기획전시 등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임진각 야외무대에서는 부활콘서트가 개최될 계획이다.

내년에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제패 80주년을 맞아 임진각에서 개성공단을 왕복하는 코스가 추진된다.

마라톤 참가 신청와 세부코스 확인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sonkeechungrun.com)에서 추후 확인하면 된다.

/박상길 기자

star bag

타이틀곡 '리듬 타'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아이콘**이 다음달 1일 자정 데뷔 하프 앨범 타이틀곡 '리듬 타'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멤버 B.I와 바비가 작사와 작곡을, 멤버 구준회가 공동 작곡에 참여했다.

日 가을 투어 돌입

밴드 **FT아일랜드**가 두 번째 일본 가을투어에 돌입했다. FT아일랜드는 28일 나고야를 시작으로 도쿄·니가타·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센다이·히로시마 등 8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다음달 29일 도쿄 부도칸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스물' 日 시사회 개최

그룹 2PM 멤버 **준호**가 자신이 주연한 영화 '스물'의 일본 프리미엄 시사회에 참석했다. 지난 23일 열린 시사회에는 1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 준호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스물'은 오는 11월 28일 일본에서 개봉한다.

'미세스캅' 종영 소감

배우 **신소율**이 29일 막 내린 SBS 월화극 '미세스캅' 종영 소감을 전했다. 신소율은 소속사를 통해 "좋은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감독님과 작가님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강희 아역 변신

배우 **김새론**이 MBC 새 월화극 '화려한 유혹'에서 최강희가 연기하는 김은수의 10대 시절로 출연한다. 현장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음달 5일 첫 방송 예정이다.

단순하게, 그래도 애쓰며 연기하죠

영화 '서부전선' **설경구**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영화 '서부전선'(감독 천성일)은 찰리 채플린이 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전쟁이 배경이지만 웃음과 슬픔이 공존하는 독특한 정서 때문이다. 이는 영화 말미에 극대화된다. 극중 한국군 졸병 남복 역을 맡은 설경구(47)가 보여주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통해서다.

영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국군 졸병 남복(설경구)과 북한군 졸병 영광(여진구)의 이야기를 그린다. 비밀문서와 탱크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두 사람의 갈등과 화해가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다. 설경구는 "캐릭터 욕심 때문에 출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남복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물이다. 캐릭터보다 배우의 호흡이 중요했다. 설경구가 생각한 상대 배우는 바로 여진구였다.

"여진구가 상대 역할이 아니었다면 출연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그냥 여진구가 떠올랐거든요. 나이도 딱 맞았고요. 그리고 남복도 영광도 영화 속에서는 처음 군대에 간 설정인데 나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진구가 영광을 연기하는 게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여진구는 유명한 스타였으니까요(웃음)."

'서부전선'에서 설경구는 전작 '나의 독재자'와는 정반대로 힘을 빼고 캐릭터에 접근했다. 남복을 연기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단순하게" 연기하는 것이었다. "제가 평소에는 안 단순해요(웃음).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걸 단순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연기했어요. 남복을 특별하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영화에 잘 어우러지고 싶었어요."

여진구와의 연기도 만족스러웠다. "'연기 호흡'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죽이 잘 맞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현장에서도 대사를 맞춰보지 않고 바로 촬영에 들어갔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쑥 들어가는 것, 그게

캐릭터 욕심보다 연기 호흡
단순하게 연기하는 데 중점
생각 비우고자 최선을 다해
여진구와 연기 죽 잘 맞았죠

호흡이었죠." 스크린 속 설경구와 여진구의 '케미'가 나이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러나 단순하게 연기한다고 해서 아무 계산 없이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후반부, 웃음과 슬픔이 공존한 표정을 짓는 남복의 모습이 그렇다. 설경구가 왜 명배우인지를 잘 보여주는 '서부전선'의 하이라이트다. "남복은 전쟁으로 심한 내상을 입었다고 생각해요.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복잡한 감정이 든 것이죠." 설경구는 "무턱대고 단순하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보여주려는 계산은 내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냥 편안해 보이는 연기 속에도 사실은 복잡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면서도 그 복잡한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설경구의 연기가 보는 이의 마음을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다른 작품도 캐릭터를 단순화해서 연기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모여 하나가 돼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비우고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건 연기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애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추석 극장가, 승자는 '사도'

'탐정'도 100만 돌파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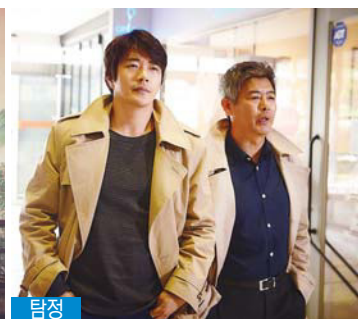
사도

탐정

영화 '사도'가 추석 연휴 극장가의 승자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도'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3일 동안 모은 관객 수는 166만3637명이다. 개봉 13일째인 28일에는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8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426만3945명이다.

특히 '사도'는 개봉 2주차에도 변함없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탐정: 더 비기닝' '서부전선' '인턴' 등 신작들의 공세 속에서도 굳건히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흥행 속도도 빠르다. 역대 추석 시즌 개봉작 중 최고 흥행작품인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3일 빨리 4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최종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탐정: 더 비기닝'도 연휴 기간 선전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81만5029명의 관객을 모았다. 개봉 첫날 3위로 첫 등장했으나 27일부터 2위로 상승, '사도'와 함께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다. 개봉 6일째인 29일에는 누적 관객수 100만여 명을 돌파했다.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도 흥행을 이어갔다. 28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212만8018명으로 전작의 성적(281만)을 향해 가고 있다. '인턴'과 '서부전선'은 그 뒤를 이었다. '인턴'은 누적 관객수 56만6362명을, '서부전선'은 누적 관객수 41만5741명을 기록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티캐스트 10개 채널!

www.tcast.tv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전국 사립미술관, 힐링전시 풍성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문화가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30일은 가을을 여는 첫 '문화가 있는 날'이다.

전국의 43개 사립미술관에서는 풍성한 힐링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서울 종로 '상원미술관'에서는 내가 꾸민 닥종이로 액자시계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종로 '토탈미술관'에서 'Artist in Films'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화분' 밴드의 브라질 삼바 음악 콘서트로 꾸며진 사비나미술관의 '힐미(Heal Me) 프로젝트'도 열린다. '환기미술관'에서는 'ARTon_예술로 소통하기' 프로그램으로 아트테라피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경기 파주의 '블루메미술관'은 '예술육아의 날'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미술관에서 놀이, 체험, 창작활동을 하며 예술육아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을 연다.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에서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요일엔 미술관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예진 기자

청계천 복원 10년, 기념행사 풍성

공연·걷기대회 등 다채 '청계천 박물관'도 재개관

청계천 복원 10주년(10월1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내달 1일 '청계천 복원 1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수상패션쇼, 사진전, 걷기대회, 경품 행사 등을 연다.

1일 오후 4시에는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복원 10주년 기념식에서는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일에 태어난 '청계둥이' 13명과 청계천 시민 사진 공모전 수상 시민 12명이 참석해 축하 떡을 자른다.

3일 오전 10시 청계천 고산자교 아래 문화광장에선 시민 걷기 대회가 열린다. 고산자교부터 청계광장까지 5.5km를 걷는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과 음료가 제공되며 집결지인 청계광장에선 축하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8시 오간수교 아래 수변 무대에서는 전통한복에서 현대 의상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상패션쇼가 개최된다.

4일까지 광교갤러리 일대에선 청계천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마련된다. 9일부터 18일까지 청계광장 삼일교 구간에선 '업사이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10~11일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에서는 1960~1970년대 청계천 생활모습을 재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05년 서울 청계천 복원과 함께 문을 연 '청계천문화관'도 개관 10주년을 맞아 '청계천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달 1일 재개관, 상설전시를 시작한다.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는 조선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계천의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프롤로그인 '서울, 청계천'은 시간을 거슬러 가며 청계천의 역사를 대형 영상으로 소개한다. 1부 '개천시대'는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되면서 청계천이 도심하천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2부 '청계천, 청계천'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청계천이 복개돼 도로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부 '청계천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의 준비 과정과 복원공사의 세부 내용을 모형, 그래픽, 영상으로 보여준다. 4부 '복원 후 10년'은 청계천이 복원된 뒤 10년간의 변화를 소개하는 자료들로 꾸며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청계천에 1억 90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했으며 내년 초면 2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내 몸 속의 위험한 돌, 결석

◆ KBS1 '생로병사의 비밀'

오후 10시

최근 5년간 11.8%의 결석 환자들이 증가했다. 이에 결석 치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1년에 한 번 꼴로 결석이 재발한다는 조성철씨의 식습관을 알아 본 결과 대다수의 결석 환자들처럼 수분 섭취가 적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개선 실험에 나선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엠넷 '헤드라이너'

오후 11시

3라운드 미션 '쇼크 웨이브 파티'가 펼쳐진다. DJ와 걸그룹들의 화려한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통해 경쟁에서 떠나야 하는 탈락자가 선정된다.

◆ JTBC '연쇄쇼핑가족'

오후 10시50분

여성들의 영원한 핫 아이템 '가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최근 패셔니스타 사이에서 가장 입소문을 타고 있는 가방 브랜드가 공개된다.

◆ MBN '엄지의 제왕'

오후 11시

3대 영양소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뱃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제대로 알고 먹는 방법과 보약처럼 먹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일(수)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여기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현장입니다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TV속의 TV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20 마녀사냥 (재) 11:50 냉장고를 부탁해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6:00 집밥 백선생 오늘 뭐 먹쥬? (재) 06: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10 집밥 백선생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05:00 레시피 공작소 05:30 루이의 니하오 키친 06:30 나를 바꾸는 30분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열정식당 (재) 08:0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08:30 테이스티 월드 09:00 씨네 라이프 09: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명물인생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추석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추석특집 세계 미식대전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추석특집 세계 미식대전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추석 기획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1 대 100	12:00 MBC 정오뉴스 12:20 그녀는 예뻤다 (재) 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앙코르 특선다큐멘터리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30 명단공개 (재) 15:4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두번째 스무살 (재)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담소룡의 소림식탁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사람과 사람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50 동행 (재)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특선 영화<집으로 가는 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라디오스타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용팔이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30 유자식상팔자 22:50 연쇄쇼핑가족 24:15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40 명단공개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집밥 백선생 (재) 24:20 비밀독서단 (재)	18:00 Mystery Dinners (재)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1:30 Outrageous Food 22:00 Chopped Canada 23:00 오감도 (재)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리틀 태극전사’ 월드컵 4강 힘찬 도전

칠레 WC 앞두고 美 출국
“기대 이상의 성과 낼 것”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칠레 U-17(17세 이하) 월드컵 4강에 도전하는 ‘리틀 태극전사’들이 마지막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했다. 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 21명은 칠레와 시간대가 비슷한 플로리다 사라소타에서 1주일 동안 전지훈련을 치르며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3일과 5일 미국 U-17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7일 칠레 산티아고로 이동한다. 산티아고에서는 10일 파라과이 U-17 대표팀을 상대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며 12일 결전지인 코킴보로 이동한다.

U-17 축구 대표팀 선수들과 최진철 감독이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U-17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미국에서 전지훈련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한국은 18일 B조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16강 진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승 제물’로 꼽히는 기니와의 2차전은 21일, 조별리그 마지막 잉글랜드전은 24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24개팀이 6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각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도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최소 1승 1무 1패의 성적을 거둬 토너먼트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이 대회 본선에 4차례 출전했다. 최고 성적은 1987년 캐나다 대회,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것이다.

태극전사들은 출국 직전 4강 진출을 향한 강한 각오를 드러냈다. 축구 유망주 이승우(17·바르셀로나)는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며 “체력 훈련을 하느라 지쳐있지만 분위기는 상승세다. 이를 잘 살려 나간다면 (4강 이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면 자부심과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며 “대표팀에서 앞으로 많은 것을 이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 감독은 “조별리그는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며 “일단 16강에 올라 분위기만 타면 8강, 4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잘 소화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석현준, 슈틸리케호 원톱 재발탁

월드컵 2차 예선전 명단 발표
해외파 총출동…내달 5일 출국

석현준(비토리아·사진)이 슈틸리케호의 원톱으로 재발탁됐다. 유럽파 선수들도 슈틸리케호에 대거 탑승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8일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쿠웨이트 대표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4차전 원정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석현준은 부상으로 빠진 이정협(상무)의 자리를 대신해 원톱 스트라이커로 또다시 선택을 받았다.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도 6개월 만에 다시 기회를 잡았다.

손흥민(토트넘)·기성용(스완지시티)·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김진수(호펜하임)·박주호(도르트문트) 등 유럽파 선수들도 모두 호출됐다.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한솥밥을 먹는 구자철·홍정호·지동원이 한꺼번에 소집된 것도 눈길을 끈다.

‘중동파’ 한국영(카타르SC)·남태희(레퀴야)·곽태휘(알 힐랄)도 슈틸리케호에 승선했다. 지난 3월 라오스전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황의조(성남), 기성용의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로 급성장한 권창훈(수원)도 포함됐다.

골키퍼는 김승규(울산)와 권순태(전북)가 재발탁됐다. 최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정성룡(수원)도 석 달 만에 합류했다. 김신욱(울산)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팀은 5일 인천공항에서 소집돼 곧바로 결전지인 쿠웨이트로 출국한다. /장병호 기자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 행진

시즌 타율 0.275유지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투수 저스틴 벌랜더의 시속 137㎞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3회에는 벌랜더의 슬라이더에 속아 삼진을 당했다. 5회에는 체인지업을 공략하다 1루수 땅볼에 그쳤다.

추신수는 1-7로 뒤진 7회말 1사 1루에서 디트로이트 왼손 불펜 블레인 하디의 시속 124㎞ 커브를 밀어쳐 유격수 옆을 뚫는 좌전안타를 만들었다. 24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시작한 안타 행진이 6경기로 늘었다.

2-7로 뒤진 9회말 1사 1, 2루에 마지막 타석에 등장한 추신수는 좌완 이안 크롤에게 볼넷을 얻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프린스 필더가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쳐 추격했다. 그러나 애드리안 벨트레가 유격수 앞 병살타로 물러나 4-7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75를 유지했다. /장병호 기자

스피스, ‘올해의 선수’ 유력

PO 최종 우승으로 명예회복
‘올해의 선수상’ 내달 2일 발표

미국 골프의 신성 조던 스피스(22·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선수가 될 전망이다.

스피스는 28일(한국시간) 끝난 PGA 투어의 2014-2015시즌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최종 승자가 됐다.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잭 니클라우스 트로피)은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해 선정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의 올해의 선수상과 달리 200여명의 동료 선수들이 주축이 된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스피스는 투어 챔피언십 우승 전까지는 시즌 4승을 거둬 승수에서는 5승을 거둔 데이에 뒤졌다. 이 때문에 동료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최종전이 끝나고 나서 마음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10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동시에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한 만큼 올해의 선수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한편 PGA 투어 올해의 선수 투표는 28일 시작돼 미국 시간으로 다음달 2일 발표된다. /장병호 기자

야구,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후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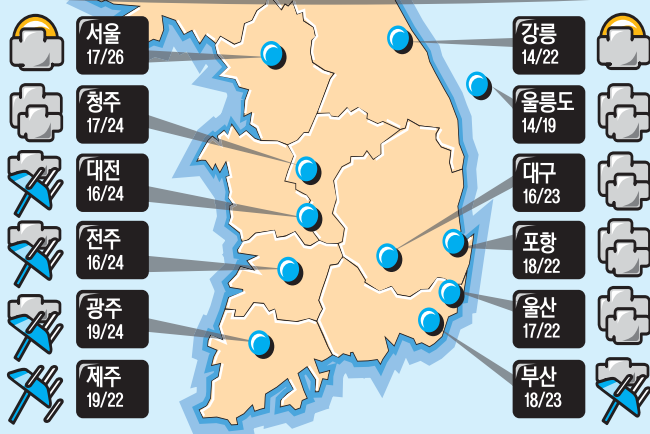
조직위, 가라테·서핑 등 5개 종목 추천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5개 종목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로 최종 추천됐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들 5개 종목을 정식종목 후보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추천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IOC 총회를 통과한 ‘어젠다 2020’에 따라 올림픽 개최도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목을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해 6월 초까지 총 26개 종목으로부터 2020년 올림픽 정식종목 포함 공식 제안서를 받았다.

이들 5개 종목이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지는 2016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장병호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2	7		
	3			6		9		2
				7				
6	4			8			2	
8		9				6		5
	2			4			7	9
				1				
3		6		2			1	
		7	8		5			

6			7	2			8	
2				9				3
	4		8				7	9
	6	1						
8								7
						1	3	
9	8				2		5	
3				8				1
	2			3	7			6

스도쿠 정답

4	6	1	9	5	2	7	8	3
7	3	8	1	6	4	9	5	2
9	5	2	3	7	8	1	6	4
6	4	5	7	8	9	3	2	1
8	7	9	2	3	1	6	4	5
1	2	3	5	4	6	8	7	9
5	8	4	6	1	3	2	9	7
3	9	6	4	2	7	5	1	8
2	1	7	8	9	5	4	3	6

6	1	9	7	2	3	4	8	5
2	7	8	4	9	5	6	1	3
5	4	3	8	6	1	2	7	9
7	6	1	3	5	8	9	4	2
8	3	2	1	4	9	5	6	7
4	9	5	2	7	6	1	3	8
9	8	7	6	1	2	3	5	4
3	5	6	9	8	4	7	2	1
1	2	4	5	3	7	8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You look fresh off the runway

A: Check me out!
B: Gorgeous! **You look fresh off the runway!**
C: Oooh! Where'd you get that dress?
A: Heh heh. It's cute right? It'd better be. I'll be paying off my credit card for a while b/c of it.
B: Oh no. Did you really charge it? You had finally paid down your old debt.
A: Don't be a nag! lol I deserve nice things. :P It's a present to myself for getting an internship.
B: Well then good for you. You did work really hard to get that position.
C: And now she can start working harder to pay off that debt. :P
B: lollll
A: Forget you guys!

너 꼭 모델 같아

A: 나 좀 봐봐!
B: 예쁘다! **너 꼭 모델 같아!**
C: 우~! 그 원피스는 어디서 샀니?
A: 헤헤. 이쁘지, 그치? 예뻐야지. 이거 때문에 당분간 신용카드에서 돈 좀 빠져나갈 거야.
B: 어떡해. 정말 카드로 샀어? 예전에 빚진 거 이제야 다갚았잖아.
A: 잔소리 좀 하지 마! ㅋㅋ. 난 좋은 것 좀 사도 돼. (메롱~) 인턴십 구했다고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B: 그렇담 잘했어. 거기 들어가려고 진짜 애썼잖아.
C: 그리고 이제는 빚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지 (메롱~)
B: ㅋㅋㅋㅋ
A: 얘들아, 됐거든!

* b/c: because
* Lol : 웃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속어로 laugh out loud의 약어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성과 만남이 지속돼지 않아 고민입니다
음력 10월에 오는 소개팅을 놓치지 마세요

아리안2 남자 78년 6월 13일 양력 2시경

Q 메트로를 열심히 읽고 있는 열렬한 독자 입니다. 저는 지금 운수업종의 배차계를 맡고 있는 남성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30대 후반으로 친구나 동창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2명도 되는데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
여자는 소개팅을 통해 가끔 만나지만 한두 번 만나고 나서는 상대방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성미가 좀 고집스러운 면과 자존심이 센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성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결혼 운과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정해서 나가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생일은 1978년 6월13일 새벽 2시 경입니다. 감사 합니다.

A 사주팔자 중 배우자 운 애정수가 미약하여 결혼을 늦게 하거나 늦게 해야 하는 운을 지닌 경우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본인의 성격에서 갖는 애정문제와 성격문제로 인하여 인연의 흐름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보편적 말들을 다시 얘기해본다면 결국 대부분의 인생사는 하심 하는 가운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내가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이 될 때 오히려 내게 복이 되며 내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겸허함을 가짐으로서 운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인 자신이 알고 있듯이 성미가 고집스러운 면은 돌출 형으로 상대들에게 자신을 불편하도록 하여 상대들이 소식을 전할 리가 없게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군겁쟁재(群劫爭財:많은 여러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하고 있어 결혼상대가 쉽게 나타나지를 않는데다가 기가 죽고는 못사는 성미가 되어 외려(外麗: 겉모양의 화려함)함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해 가는데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옷 색상에서 흰색은 모든 사물을 끌어 당기는 힘이 강하므로 대부분의 색이 잘 맞으며 본인의 기를 깔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분적인 얘기이겠으나 상대를 만나러 갈 때 옷을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차분한 칼라를 선택하고 상대방이 말하도록 많이 들어주시되 할 얘기가 끊기었을 때 어떤 대화로 이어나가서 어색함이 없이 할 것 ㄴ인가 연구하고 노력하십시오.
음력 10월에 소개팅이 오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행히 생시지(生時支)에서 합을 이뤄 절처봉생(絶處逢生: 어려움을 만난 곳에서 헤쳐 나옴)하는 격이 되어 흉함이 길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30일 (음 8월 1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0년생** 주의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2년생** 원하는 일은 빨리 이루어집니다. **84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49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61년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73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길합니다. **85년생**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51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3년생** 반드시 길하게 됩니다. **75년생** 순리에 따르도록 하세요. **87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려 하지 마세요.

52년생 가벼운 운동이 길합니다. **64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76년생** 운이 너무나도 길합니다. **88년생** 생각한 바를 밀고 나가세요.

53년생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65년생**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77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게 좋을 듯 합니다.

54년생 단순한 놀이에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세요. **66년생** 거짓말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78년생** 만물엔 이치가 있는 법. **90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세요.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 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세요. **68년생**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80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세요.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길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5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7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2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 하세요. **94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9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1년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여기저기 자랑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95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우리를 서글프게 만든 영화 '사도'

양경미의 문화톡

이준익 감독의 영화 사도(思悼)는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를 다룬 영화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새로울 것 없는 흔한 소재지만 이미 400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 관객들은 이 영화의 어디에 끌렸을까? 우리 시대에 자본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두고 벌어진 부자 간 골육상쟁을 보면서 돈 앞에 부자 간, 형제 간 싸움마저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본 것은 아닐까? 사도는 그래서 슬픈 영화다.

영조는 역대 임금 중 가장 긴 시간(52년)을 재위한 왕이다. 긴 시간 만큼이나 권력욕도 강했다. 권력을 향한 영조의 욕망은 대리청정과 잦은 양위파동으로 나타난다. 영조는 사도에게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긴다"라고 한다. 영조에게 사도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경쟁자이다. 선조들이 피비린내 내며 권력을 쟁취했듯이 자신 역시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리청정을 맡은 사도는 신하들에게 "군대는 신하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군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영조는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하의 결정을 윤허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라며 사도를 꾸짖는다. 신하들과 사도가 국정에서 대립하면서 사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만 영조는 아들 사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보다 신하를 택하는 것이다. 결국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는 사도를 보며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눌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돈 때문에 부자와 형제 간의 천륜을 깨는 일이 흔한 지금, 사도는 단순한 사극이 아니다.

신하들의 사리사욕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다. 하지만 국익보다 사익이 만연하게 되면 국가는 쇠할 수밖에 없다. 특히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영조는 서자라는 자신의 출신 배경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노론의 의견에 거스름이 없었다. 왕권과 신권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게 거래를 하고 신하들은 국가보다는 자신과 가문의 이익을 우선한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왕권과 신권이 결탁해서 국가보다 가문이나 개인의 이익이 우선된 경우가 많았음을 관객들에게 암시한다. 영조로부터 2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국익을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든다.

"애 닳도록 생각한다"는 의미의 사도는 아들이 죽은 후 영조가 내린 시호다. 영화 사도는 부자간의 어긋난 애증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갈등을 전면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권력욕이나 왕권과 신권의 결탁을 이야기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영화 사도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듯해서 더욱 서글프다.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국민연금, '제멋대로' 기금운용 언제까지

기자 수첩
김보배 <경제부>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각종 투자 손실에 따른 부족한 운용 능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국민연금 주인마저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공적 연금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 매월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며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된다.

이처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국민연금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에 투자해 날린 금액은 1996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990억원의 피해를 봤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 지분 8.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초 대규모 영업손실(Big Bath)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반기 중 5.27%의 지분을 처분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지분은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하한가(-30%)로 떨어진 이후에야 정리됐다.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귀결되리란 법은 없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과 부실이 드러난 후의 '늑장대처'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양사 합병 전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율은 각각 11.88%와 5.04%로, 이들 주가는 합병 직전까지 한 달 사이 각각 30%, 20%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총 6500억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삼성물산 합병 법인도 출범 후 현재까지 17% 이상 빠지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다. 납부된 연금을 제대로 운용해 국민에 돌려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면서 돈만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원칙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 능력이 검증될 때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인사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 유창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과장 홍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손병석 ▷철도국장 박민우
◇중앙대 ▷안성부총장 겸 안성캠퍼스 발전기획단장 김준교 ▷창의ICT공과대학장 한상용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술정보지원팀장 길경한 ▷세종경력개발센터 팀장 김창겸 ▷총무팀장 이종균 ▷교무지원팀장 심형근 ▷기획조정팀장 겸 예산관리팀장 김창배
◇배재대 △직원 전보 ▷진로개발센터장 유명희 ▷시설관리부처장 조중길 ▷학술정보부처장 이상훈 ▷생활관장 최병민 ▷학적계장 한승헌 ▷총무계장 겸 구매계장 배희재 ▷대덕밸리캠퍼스 교학계장 겸 산학사업팀 계장 박인선 ▷문헌정보계 주임 김영숙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 전보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최종배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최영해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 윤헌주 ▷과학기술전략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문성유 ▷과학기술전략본부 성과평가혁신관 박필환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상학
◇해양수산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해양개발과장 윤종호 ▷해운정책과장 이상문 △4급 승진 ▷운영지원과 김태석 ▷기획재정담당관실 윤상훈 ▷해양정책과 길인환 ▷원양산업과 조성남 ▷해사안전정책과 최성용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병곤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김종철 ▷항로표지과 이승영 ▷감사담당관실 신용범 ▷항만정책과 김규섭 ▷세월호인양추진단 홍원식

社說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가 그렇게 어려운가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인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순직인정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사의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 청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그 다음달 반려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제 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제계를 적용받는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3년 법원에서는 "기간제 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의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9일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회신한 내용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사혁신처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법을 떠나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은 기간이 제한돼 있을 뿐 교직이라는 공무를 맡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른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를테면 공중보건의나 의무경찰 등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최근 정부도 계약적 공무원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들에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인가? 인사혁신처는 이런 물음에 답해야 한다.

'짝퉁 샤넬 가방' 제조판매 일당 검거

소비자 119

2700여 점 위조 제작 동대문시장서 판매

명품 브랜드 샤넬 '짝퉁' 가방 2700여 점을 제조한 뒤 동대문시장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하원호)는 명품 가방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짝퉁 제조업자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주택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짝퉁가방 2773점을 제조한 뒤 21회에 걸쳐 개당 10~15만원에 김 씨에게 납품했다.

샤넬 가방은 정품일 경우 개당 수백만원에 팔린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들이 판매한 가방들이 정품일 경우 시가 총액은 121억 5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 씨는 3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김 씨는 이 가방들을 다시 개당 20~30만원에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넘겨 5억원 가량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의 서대문구 홍제동 창고에서 짝퉁 가방 1520점을 압수한 뒤 장부와 영수증 등을 분석해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시중에 판매한 동대문 시장 상인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I 순하리 처음처럼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